

전지현과 CF (브랜드 38연구소) 소장 박문기 : BRAND38.COM

전지현은 아직도 스타마케팅의 부동의 1위를 누리고 있는 대형스타임에 틀림없다. 브랜드 컨설팅 전문업체인 브랜드 38연구소 SMBI의 조사에 의하면, 천명의 소비자들 중에서 93명은 TV광고 모델로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스타로 전지현을 선택하여 그녀가 우리나라의 부동의 대형스타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무엇보다도 전지현의 장점 중의 하나로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녀를 싫어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브랜드 38연구소 SMBI의 조사에 의하면, 10위권 안에 네이버(1위), 엘라스틴(7위), 올림푸스(10위) 등에 해당하는 가장 높은 호감도를 나타내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를 선택하는 팬들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내년에도 그녀가 소비자 최초상기도에서 1위를 지속할지는 장담할 수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브랜드 컨설팅전문업체인 브랜드 38(brand38.com)연구소에서 최근 2년간 4회에 걸쳐서 전지현의 소비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26.1%(2003.4), 19.0%(2003.9), 10.9%(2004.2), 9.3%(2004.9)로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이를 반증하고 있다.

그녀의 인기만큼 그녀가 찍는 CF가 모두 대박이 나지는 않아, 대형스타=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증대는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지현과 연상되는 CF를 조사한 결과 엘라스틴, 올림푸스, 네이버, 라네즈, 지오다노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에 LG 카드, 메타콘, 비요뜨, 오일뱅크는 소비자의 기억 속에서 잊혀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지오다노가 TV광고를 하지 않는 기간동안, 메타콘, 비요뜨, 오일뱅크의 CF가 TV에서 열심히 광고를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지오다노를 더 기억하고 있었다.

이에 대한 정답은 그녀의 이미지에서 찾을 수 있다. 소비자들은 그녀의 이미지가 패셔너블 하다고 생각하여, 머리를 피부의 일부로 고급스럽게 소구한 엘라스틴, 추억의 사진을 사랑스럽게 담아내는 올림푸스, 날마다 새롭게 자신을 표현하는 라네즈, 최신 유행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지오다노 등은 그녀

의 럭셔리한 이미지와 어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지현이 LG카드에서 실패한 것은 대형스타에 걸 맞는 노출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LG카드의 자금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 그 당시 대장금의 이영애의 인기가 30-40대에 집중된 것이 신용불량자가 많은 10대들의 스타인 전지현에게는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다 준 것으로 분석되었다.

오일뱅크는 송혜교(웰스 정수기 광고:물과 기름 어색함)에서도 크게 빛을 발하지 못하였으며, 전지현을 기용한 지금도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SK 엔크린도 이효리가 열연하였지만 큰 효과를 주지 못하였다. 브랜드 38의 조사에 의하면 무명의 여자가 나온 "내 마음 속의 주유소"가 더 큰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는 패셔너블한 모델과 기름기 뚝은 정유회사는 모두의 이미지에 큰 효과를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형스타는 주로 생활 용품, 가전, 식음료, 패션광고에 출연하는데, 기름 냄새의 이미지가 오히려 기존 이미지를 훼손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정유회사의 오일은 고관여, 이성애 가까운 제품이므로 감성이 강한 연예인을 등장시킨 커뮤니케이션함은 오히려 가벼운 느낌이 들 수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나운서, 그 분야 전문가들이 "좋은 오일을 써야 차가 오래 갑니다." 라고 이성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대형스타를 기용할 때, 제품의 속성과 모델과의 이미지에 대한 분석이 없이 실행된다면, 이에 대한 모든 것은 투자가 아니라 비용이라는 것을 광고주는 알아야 할 것이다.

< 전지현의 소비자 인지도 >

광고명	최초상기도	보조인지도	적합도	SMBI
올림푸스	22%	96%	37%	71.37
엘라스틴	26%	97%	34%	71.26
네이버	17%	95%	11%	41.80
지오다노	8%	84%	9%	31.51
라네즈	11%	77%	7%	30.10
오일뱅크	5%	66%	2%	18.82
비요트	3%	69%	0%	16.09
메타콘	0%	35%	0%	7.14

